

민형배 18.5%·김영록 16.8%…與 통합단체장 적합도 박빙

광남일보·KBC 공동, 광주전남통합단체장 후보 여론조사

광주는 민형배, 전남은 김영록 우세…지역별 선호 엇갈려
신정훈·주철현·강기정 등 중위권 형성…후보군 다자구도
부동층 19% 달해…민주당 경선 판세 선거 막판 변수될 듯

광주·전남 행정통합 경우,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통합단체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민형배 국회의원이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혼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 는 공식이 적용되는 만큼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 사이의 사활을 건 공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광남일보와 K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부에 의뢰해 광주·전남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광주·전남이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경우 지지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으로 '지역경제·일자리 등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이 32.1%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6.8%, 신정훈 국회의원은 9.4%를 기록했다. 이어 주철현 국회의원(7.6%), 강기정 광주시장(7.0%),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6.3%), 이용섭 전 광주시장(6.1%), 정준호 국회의원(5.4%), 이명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5.0%), 정준호 국회의원(4.1%) 순이었다. 기타 인물은 3.0%, 없음 또는 모름은 16.0%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민형배 국회의원(27.0%), 김영록 전남도지사(10.4%), 강기정 광주시장(9.0%)이 강세를 보였다. 전남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기장 높은 적합도를 기록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6.8%, 신정훈 국회의원(12.2%), 민형배 국회의원(12.0%), 주철현(11.7%) 국회의원 순으로 후보적합도가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에서는 민형배 국회의원이 18.5%로 가장 높았고, 김영록 전남도지사(16.8%), 신정훈 국회의원(9.4%), 주철현 국회의원(7.6%), 강기정 광주시장(7.0%) 순이었다. 여성도 민형배 국회의원(19.5%), 김영록 전남도지사(16.8%), 신정훈 국회의원(8.8%), 주철현 국회의원(8.2%), 강기정 광주시장(8.0%) 순서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통합단체장 후보적합도

기타후보 : 3.0%
없음/모름 : 16.0%
(단위 : %)



광주·전남 행정통합 경우,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통합단체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민형배 국회의원이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혼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 는 공식이 적용되는 만큼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 사이의 사활을 건 공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광남일보와 K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부에 의뢰해 광주·전남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광주·전남이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경우 지지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으로 '지역경제·일자리 등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이 32.1%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6.8%, 신정훈 국회의원은 9.4%를 기록했다. 이어 주철현 국회의원(7.6%), 강기정 광주시장(7.0%),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6.3%), 이용섭 전 광주시장(6.1%), 정준호 국회의원(5.4%), 이명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5.0%), 정준호 국회의원(4.1%) 순이었다. 기타 인물은 3.0%, 없음 또는 모름은 16.0%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민형배 국회의원(27.0%), 김영록 전남도지사(10.4%), 강기정 광주시장(9.0%)이 강세를 보였다. 전남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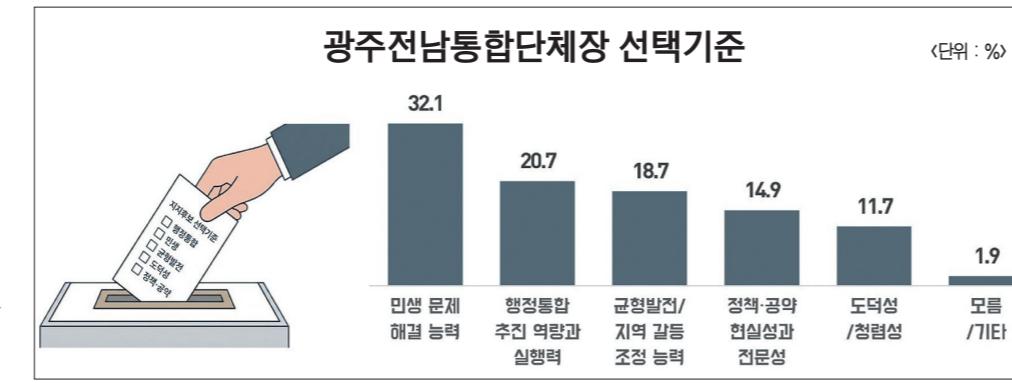
기장 높은 적합도를 기록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6.8%, 신정훈 국회의원(12.2%), 민형배 국회의원(12.0%), 주철현(11.7%) 국회의원 순으로 후보적합도가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에서는 민형배 국회의원이 18.5%로 가장 높았고, 김영록 전남도지사(16.8%), 신정훈 국회의원(9.4%), 주철현 국회의원(7.6%), 강기정 광주시장(7.0%) 순이었다. 여성도 민형배 국회의원(19.5%), 김영록 전남도지사(16.8%), 신정훈 국회의원(8.8%), 주철현 국회의원(8.2%), 강기정 광주시장(8.0%) 순서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민형배 국회의원이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적합도를 기록했다. 70대 이상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가장 높았다. 성별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민형배 국회의원 21.0%, 김영록 전남도지사 18.6%, 신정훈 국회의원 11.2%를 기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통합단체장 후보적합도는 5명 중 1명 가량인 19.0% (기타 0.3%·무응답 16.0%)가 응답을 유보해 부동층 표심이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선택 1순위는 '민생'

지역경제·일자리 '32.1%' 행정통합 추진 역량 등 순



광주·전남이 통합돼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경우, 유권자들은 지역경제·일자리 등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지 후보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남일보와 KBC 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부에 의뢰해 지난 2~3일 광주·전남 만 18세 이상 시·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광주·전남이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경우 지지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으로 '지역경제·일자리 등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이 32.1%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어 '행정통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실행력'이 20.7%, '광주·전남 균형발전과 지역 갈등 조정 능력'이 18.7%, '정책·공약의 현실성과 전문성'이 14.9%, '도덕성·경험성' 등 11.7% 순으로 꼽혔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은 30.9%, 지역 갈등 조정 능력은 20.9%, 행정통합 추진 역량과 실행력은 20.7% 순으로 집계됐다.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